"中企 뭉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에 역동성 불어넣겠다"

8월 창립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김보곤 회장

"중소기업이 활발하면 고용창출도 늘어나고, 돈도 춤을 춥니다.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이라는 얘기지요. 고유가, 고원자재가 때문에 빚어진 열악한 경제환경에서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칭)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김보곤(49) 회장은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회원기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기업 선정 심혈

다음달 창립을 앞둔 선도기업협회는 지난 1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역동성 넘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선도기업협회는 오는 16일 고문단·부회장단이 참석하는 임원진 회의를 열어 회원사 입회현황과 재정문제, 창립총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회원자격을 혁신형 기업및 수출유망기업, 업력 3년 이상과 전년도 매출기준 10억원 이상 등으로 '최소 자격'을 제한해 가입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당초 7월말로 예정된 창립총회를 8월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 김 회장은 "현재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한 살림살이를 이유로 연구개발 기반이 미흡한데다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기술 및 지원분야의 복합화, 융합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각 회원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 이들 제품이 판매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회원제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협회-조달청 등이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 개발 지원

이와 함께 선도기업협회는 창립총회를 계기로 협회 또는 10개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공동브랜드를 출범시켜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김 회장은 "지역내 지자체와 기업지원기관은 물론 다른 지역 단체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늘 깨어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애정과 성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

지난 12일 서울 압구정동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에서 열린 '에코 드라이빙 콘테스트' 전국 결선 출전자들이 대회 시작에 앞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기아차 고연비 운전대회 "최대 年 138만원 절약"

기아차는 전국 16개 지역예선을 거쳐 지난 12일 서울에서 결선을 치른 고연비 운전대회 '에코 드라이빙 콘테스트'에서 우승자 박성규(청주·34)씨가 최고 연비인 19.64㎞/ℓ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록은 대회에 쓰인 차량인 로체이노베이션의 공인 연비 보다 ℓ당 7.1㎞를 더 주행한 것으로, 최근 집계된 기름값과 평균 승용차 운행거리 등을 따지면 연간 연료비 138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6천120개팀이 참가신청을 해 지역예선 우승자 16개팀과 연예인 레이싱팀, 로체 동호회팀 등 20개팀이 결선을 치렀으며 조영준(안산·39)씨 팀이 19.57km/ℓ를, 서영호(대구·38)씨 팀이 19.53km/ℓ를 각각 기록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대회 1위에게는 상금 300만원, 2·3위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조업 재개

노사 파업 사흘만에 단체협약 합의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 사흘째인 11일 회사측과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하고, 12일 조업재개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노사 양측은 이날 사측이 직원 431명 구조조정안을 철회하는 대신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생산량을 각각 10%와 3% 늘릴 것과 기본급 3%와 상여금 50%, 휴가비 5만원 등 인상에 합의했다.

또 노사 양측은 2008년 성과배분금 250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하고, 정년을 만 57세 연말로 통합하되 내년 상반기 정년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을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3천900여명은 12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손실을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닌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가 국내공장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조정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인력조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사측의 직원 431명 구조조정안에 반발, 지난 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 2일에 이어 10일 부분파업을 실시한 기아차 광주공장은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오는 16일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기아차도 이날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VISA카드 회원 대상 '쿨 썸머 페스티발'

광주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31일까지 광주VISA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쿨 썸머 페스티발(Cool Summer Festival)'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 디오션리조트의 '파라오션워터파크' 30~35% 할인(동반 1인 포함)을 비롯, 나주 중흥골드스파 '워터락'과 화순금호리조트 '아쿠아나'에서 각각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광주VISA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액에 따라 사은품이 제공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3분기 제조업 전망 어둡다

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

제조업체의 3분기 시황 전망이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밑돌았고 2분기 실적도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30% 올랐지만 제조업체의 81%는 제조원가 상승률이 1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제조업체 80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3분기 시황 전망 BSI는 98로 지난해 1분기에 96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BSI가 100보다 크면 호조를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악화를 뜻한다.

3분기의 부문별 BSI 전망은 자금사정(90)과 경상이익(92), 내수(99) 등이 2분기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103)과 수출(103), 설비가동률(103), 설비투자(102), 고용(101) 등은 호조가 예상됐고 재고(100)는 전분기와 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2분기 시황현황 BSI(실적)도 94로 1분기의 92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으며 이는 2006년 1~3분기에 분기 연속으로 기준치에 미달한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 3분기 시황 전망 BSI가 기준치에 못 미친 부문은 자동차(91)와 조선(91), 기계 및 장비(92), 비금속·석유정제(92), 목재·종이·인쇄(94), 화학(95) 등이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전문위원·자문위원 모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남헌일)는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컨설팅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통한 기술·경영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컨택센터에서 함께 일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모집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담 컨설턴트가 장기간 동안 기업체를 방문해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체 요구사항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기업지원 단일창구인 컨택센터(Contact center)를 설치, 시범운영해오고 있다.

전문위원(위촉직)은 주 2일 이상(1일 8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컨택센터에서 근무해야 하며 위원별로 5~7개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수당은 월 200만원으로, 위촉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자문위원(위촉직)은 지정된 요일 및 시간(주 1회 2시간)에 컨택센터내에서 방문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하며, 회원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현장에 투입된다. 수당은 상담건수별로 매달 4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위촉기간은 전문위원과 동일하다.

오는 18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062) 602-7012. /이종태기자 jtlee@